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예수 성탄을 축하하며, 새해 축복을 빕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
 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 2.14)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도록 기원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난 한해 KSC 를 후원해 주신 성령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 저마다 불씨 되어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꽃을
 활활 피어 오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쇄신 세미나 일정

일자	행사명	주최 (협조)	문의
1/15-18	National Leaders' Gathering	NSC	이은경 (253)223-8775
1/26-29	청년 지도자 Work Shop	KSC	이은경 (253)223-8775
2/9-12	은혜의 밤	알래스카 앵커리지 본당, KSC	이은경 (253)223-8775
2/16-19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씨애틀 본당, KSC	김 테레사 (425)712-0684
2/22-26	과달루페 성지 순례	KSC	이은경 (253)223-8775
3/12-15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안희숙 (704)839-9336
7/13-16	은사적 성모 신심 세미나	타코마 본당, KSC	이은경 (253)223-8775
7/15-16	동부 성령 은사적 쇄신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1. 저희 KSC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지난 2005 년에도 자원 봉사자의 헌신 봉사로 운영해왔습니다. 2006 년에도 계속하여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2. NSC 에서 간행한 LSS 2000 신판을 기초로 KSC 는 LSS 새 지침서(요약) KSC 판을 출간하여 이를

한인공동체에서 널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서북부 봉사회의 협력으로 3 차에 걸쳐 LSS 봉사자 교육 세미나를 시행하였고, 본당 단위로는 처음으로 캐나다 캘거리 기도회 에서 1 차 봉사자 교육 세미나를 주관하였습니다.

3. LSS 봉사자 교육 세미나에 이어서 개최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동체 기초 세미나에서 120 명의 수강자들을 위하여 14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4. 2004 년에 제기한 신규사업으로 미주 한인공동체의 숙원인 대학선교 (Campus

Ministry)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선 보스톤에서 2005 년도 대학생 신앙쇄신 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각 교정을 연결하는 Network 을확장할 계획입니다.

5. KSC 는 2005 년을 ‘청년, 청소년 LSS 세미나의 해’ 로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본당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청년, 청소년 신앙쇄신을 위하여 영어권 LSS 세미나 봉사자 틀양성하기 위하여 ‘LSS 청년 봉사자 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6. 오는 2007 년 2 월은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4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NSC 를중심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KSC 도 다른 그룹과 함께 이미 준비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7. 2006년에도 예정대로 2월에 과달루페 순례, 9월에는 순례를 겸한 유럽 문화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의 모후이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부디 주님의 축복을 누리소서!

성령 강림 문화 확립에 앞장서자

지난 11 월 11 일 부터 13 일 까지 시카고에서 NSC 주최 2005 년 가톨릭 은사적 쇄신 전국 봉사자 대회 (National Leaders' Conference)가 열렸다. ‘Sent forth to build the culture of Pentecost’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도자 수련, 치유, 찬양을 비롯한 9 개 분야에 걸쳐 36 회의 워크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분야가 신설되어 청년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일깨울 것인가를 주제로 4회의 워크샵이 진행됐다.

루이지애나의 썸 제이콥스 주교는 첫날 강론을 통해 성령 강림이란 주님의 사랑, 생명, 그리고 임무이며 이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성령 강림이 우리의 신념 체계와 환경으로 정착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문화라 정의하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화 시키는 것이 구원을 넘어선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강조했다.

썸주교는 인류의 성화는 어느 시대에나 가톨릭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성령을 받아 들이고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설교했다.

그는 성령 강림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랑의 풍부한 결실을 맺어 인류 공영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입금 후원금

KSC 후원회, 2005 성지순례 찬조금	\$5,046.39
서북부 봉사회 (Seattle, WA)	\$200.00
앵커리지 공동체 (Anchorage, AS)	\$1000.00
세기 여행사 (Anchorage, AS)	\$500.00
임요한 보스코, 데레사 (Calgary, AB)	\$200.00
양 데레사 (Edmonton, AB)	C \$100.00
이기옥 마리아 (Memphis, TN)	\$100.00
김분다 (Minneapolis, MN)	\$100.00
2005년도 세금공제를 위한 KSC 후원금 영수증을 1월 15일 까지 발송합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험한 오솔길을 신작로로 만들듯이, 실낱같은 시냇물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듯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이룹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놓아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대지... 凍土 알래스카

뽕뽕 얼은 땅 녹인 성령 가득 찬 사랑의 마음

“성령 체험 시간은 온 몸으로 다가 오신 성령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부터 시작하여 온 몸은 전율로 가득 차 저의 지나온 삶들이 주마등 스치듯 지나가며 주님께 향한 봉헌된 삶만이 나머지 인생의 기쁨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죄의 모든 잘못을 적시며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앞에, 지난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 타인에게 상처 받고 저의 죄로 인해 발생된 그릇된 신앙관, 비판적이고 자학적이고 나만이 주님을 안다던 자만심,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함께 하는 공동체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가정, 사회, 직장, 본당, 공동체에서 변화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토의 알래스카란 말을 자주 하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동토가 아닌 사랑 가득 찬 뜨거운 대지입니다.”

지난 12월 1일 부터 3일 까지 앵커리지 본당에서 진행된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마친 이종인 베드로 씨의 말이다. 성령 세미나를 받고나서 그는 어두움과 추위가 축복으로 바뀌며 동토가 따뜻한 사랑의 대지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세미나 후 창설된 첫 기도회에 참석한 신자들은 “주님이 이 먼 동토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며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이번 앵커리지 세미나에는 약 120명의 본당 신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지도 신부는 캐나다 캘거리 이성도 신부와 토론토 피더보로의 이금재 신부, 그리고 KSC 회장 이창재 부제가 세미나를 이끌었다. 캐나다에서 온 두명의 신부들은 세미나 중의 성사, 그리고 이를 내내 이어진 고해성사에 피곤했지만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기쁨을 가졌다고 말했다.

참여자 각 개인에 대한 봉사자 2명의 면담과 기도방 운영은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시도되어, 각자를 축복하는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었다. 주일에는

미사 전후 전 신자가 참여해 성령의 열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기도회가 설립되지 않았던 앵커리지 세미나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KSC 봉사자들은 물론, 동북부 봉사회 김상혁 회장을 비롯한 서북부 봉사회와 캘거리 기도회등 각지에서 17명의 봉사자들이 앵커리지에 도착해, 앵커리지에 미 본토 전역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기도와 은총이 모아졌다.

세미나 수강자들을 대표해 이 종인 베드로씨가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강론 말씀과 강의, 신앙 간증, 조별 회의를 통하여 듣게 된 여러분의 귀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간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위해 먼길을 마다 않고 한 걸음에 찾아 주신 사제단,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세미나를 허락하신 본당 신부님의 사목적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숨은 많은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 성령을 체험하신 교우분들 축하드립니다.”



KSC 2006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 복음 선교 회원 모집

아래와 같이 'KSC 2006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 복음선교'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정: 2006년 2월 22일(수) - 26일(일) (4 박 5일)
- 집합: 2월 22일(수) 16:30 (4:30pm) 까지 Mexico City 국제공항 집결.
- 출발: 2월 26일(일) 14:00 (2:00pm) 이후 Mexico City 국제공항 출발.
- 회비: \$450 (숙식과 교통비 포함) (Check : Payable to KSC)
-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이며, 각자 구입합니다.
- 접수, 문의: KSC 사무국-130 67th Ave. Ct., Fife, WA 98424
이은경 Julia Lee, 253-223-8775 Fax: 253-663-4407, eunkyungjulia@hotmail.com
- 마감: 2006년 2월 2일 (선착순 40명)

----- 자르는 선 -----

KSC 4차 과달루페 순례 여행 참가 신청서

이름(한글):	영세명(한글):
Name(여권영문):	영세명(영문):
Phones:(R) (B) (C)	Sex: M() F()
Address:	
E-mail address:	Room-mate Name:
여권국적(Nationality):	출발공항(Departure Airport):
여권번호(Passport No):	항공사, 도착시간(Arrive Time):
소속 공동체:	회비 납부:\$450.00
<p>나는 Guadalupe 순례에 참석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 날짜: 2006년 월 일</p> <p>서명 Signature : _____</p> <p>신청자에게는 일정표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p>	
Official Memo:	